경상지역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 워크숍 결과

□ 개요

○ **일　　시** : 2012. 6. 26(화) 14:00~6.27(수) 13:00

○ **장　　소** : 경북 청송군청 2층 대회의실

○ **주최/주관**: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,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

○ **후　　원** : 국토해양부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청송군, 경남발전연구원, 대구경북연구원, 부산발전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

○ **참석인원** : 70여명(위원장, 대경권광역위 사무총장, 청송군수, 발제·토론자, 지자체 관계자 등)

□ 진행순서 및 내용

○ **개 회 식**

- 개 회 사 : **박광길** (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)
- 환 영 사 : **한동수** (청송군수)

○ **주제발표** : 2건

-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(이왕건/국토연구원)
- 시군 특화사업의 브랜드 육성 전략(윤지영/부산발전연구원)

○ **특화사례 발표** : 2건

- 순창장류산업 특화발전 사례(정도연/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장)
- 문경오미자사업 특화발전 사례(이우식/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계장)

○ **지정토론(5명/** 지역위 1, 경북 1, 교수 2, 전문가 1) 및 질의 응답

□ 주요 토론내용

○ 오익근 (좌장 / 계명대학교 교수)

- 지역의 향토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타지역의 동일·유사한 사업들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
- 지역위의 특화발전 컨셉은 지역 내부의 자산을 활용하여 발전하자는 취지이지만 “키위”의 사례 이 부의 자 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특화발전 사례 발표의 공통점은 역사성인데(문헌 근거), 향토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며, 향후 유사 상품들의 난립 과정에서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
- ‘발효식품을 선도하는 순창’의 슬로건과 이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아이템은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
- 지역 내 인구 유출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문제의 심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행정의 재정 부담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 에서의 지속적인 지 이 필요
- 의성과 구례의 산수유, 진주 청도의 소싸움의 사례에서 이 아이템이나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의 추진은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

○ 권용덕 (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)

- 지역자산 맵 제작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 에서 지역자산의 유형과 함께 이를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마련이 필요함
- 지역특화사업의 추진은 이미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개념이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화발전과 기존 관련사업의 차이점은 내부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것임

- 지역 특화사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단계가 특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 과 자치단체 노력으로 활발히 추진되다가 이후 특화 아이템에 대한 벤치마킹 과정에서 유사 중복 아이템의 양산으로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
-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를 극복하고 지속성과 생명력을 유지한 아이템들을 대부분 현재 성공한 특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문경 오미자, 순창 고추장, 고창 복분자 등임
- 특화사업 추진의 과제로는 유사 중복 아이템의 문제,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련 예산 공급량의 감소, 지역 내 브랜드의 난립과 전략적 육성 방안의 부족 등임
-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으로는 정부 예산에 대한 중복·분산 투자로 인한 효율성 감소의 극복을 위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정부차 의 집중적인 예산지 제도 마련과 1, 2차 산업과 함께 3차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
- 지역 내 브랜드 중복 난립을 극복하고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전략을 지자체 차 에서 고민하고 수립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함

○ 문태헌 (경상대학교 교수)

-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나 홍보가 없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며 유사한 아이템의 중복은 피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함. 오히려 지속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중복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
- 특화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 내의 전문가 집단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공무 임. 공무 의 리더십이나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임. 공무 으로 구성된 스터디그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
- 열의를 가진 사람,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, 자본을 가진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 모아서(어떻게 키워서)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? 사례를 들자면 현직 대학교수가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 (지식 기부)을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 방법 제공

- 사업 재 의 투자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범사업의 유치를 통해 사업초기의 추진 동력을 얻도록 해야 함
- 사업추진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는 역할을 행정에서 담당해줘야 함

○ **나영강** (경북도청 사무관)

- 특화사업에 대한 개발에는 정책차 에서 많은 지 이 있지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부문에도 정책적인 관심과 지 이 필요함
- 즉, 기존의 지역 특화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(명품화, 업그레이드) 지 정책 마련 필요
- 지역의 자 을 누가 어떻게 실로 꿰느냐가 중요하며, 행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의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(공무 의 전문성 한계)
- 식량 대책에 대한 관심도 특화발전의 아이템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잡곡 부분도 새로운 특화발전 아이템으로 검토할 필요

○ **신광호** (성장기반과장)

- 성공한 특화발전사업의 요인으로는 특화품목의 현명한 선택, 사업을 리드할 인적자 의 확보,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, 브랜드 전략의 수립과 추진, 행정차 에서의 적절한 지 정책 추진 등임

□ Q&A 내용

○ **김준호**(거제시 공무 , 질문)

- 인적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인적자 확보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, 일부 사업에서 사업 선정 후 관리가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음
- 대안으로 지역 내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비용을 지 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 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

○ **문태헌** 교수(답변)

- 거제 종합발전계 을 공무 자체적으로 수립 중임

○ **이왕건** 박사(답변)

- 무조건적인 특화발전 사업 추진은 위험성이 있으며 지역의 여건(기후, 인력의 확보 여건, 관련 기반 등)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
- 국가적인 지 정책과의 연계 기회를 잘 잡아야 하며, 특화발전 규모 및 수준에 대한 인증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

붙임 **워크숍 주요장면**

▣ 위원장님 인사말씀

▣ 특화발전 주제 발표(국토연구원 이왕건 센터장)

▣ 특화발전 주제 발표(부산발전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)

▣ 순창 장류산업 특화발전 사례 발표(순창군 정도연 센터장)

▣ 문경 오미자 특화발전 사례 발표(문경시 이우식 계장)

▣ 지정토론 전경

▣ 특화 우수사례 현장 답사 (청송 외씨버선길)

▣ 특화현장 청송양원(청송사과를 원료로 한 증류주 "청송아락" 제조) 전경

▣ 특화현장 청송양원 대표의 설명 청취

▣ 주왕산과 대전사 전경